

1. 한국 민속학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선민속학회는 1932년에 창설되었다.
- ② 『조선민속』 창간호는 1932년에 출판되었다.
- ③ 최상수는 1956년에 한국민속학회를 발족시켰다.
- ④ 1958년에 민속학회가 창립되었다.

2. 한국 민속학의 연구자와 업적을 옳게 짹지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최남선 -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薩滿敎劄記)」 등 일련의 민속학적 논문을 발표하고 단군신화에 나타난 조선정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 ㄴ. 이능화 -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문헌학적 연구와 함께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조선신가유편』 등을 저술하였다.
 - ㄷ. 손진태 - 한국의 문헌자료를 정리하여 『조선무속고』 등을 남겼다.
 - ㄹ. 송석하 - 현지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민속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민간연희에 관심이 많았고 사후에는 그의 논문을 모은 『한국민속고』가 출판되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3. 친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제는 파시조, 중시조, 시조의 순서로 대를 따라 지낸다.
- ② 『사례편람』에서는 부계와 모계만을 포함하는 친속의 무리를 친척이라 하였다.
- ③ 8대가 지나 집안에서의 기제사를 끝내고, 위패를 무덤 앞에 파묻은 조상들을 위해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 한다.
- ④ 고조가 같은 사람들의 범위가 있는데, 이를 일러 동고조 8촌이라 하거나 당내친이라 한다.

4. 세시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날은 신일(慎日)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세시행사가 차례와 세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조선시대 4대 명절에 속했지만 성묘를 하지 않는다.
- ③ 단오는 양(陽)의 기운이 강한 명절로서 수릿날이라고도 하며, 차례를 지내고 그네뛰기와 씨름을 하기도 한다.
- ④ 추석은 보름명절로서 가배일(嘉俳日)이라고도 하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도 한다.

5. 정월대보름 민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월대보름 놀이에서 가장 신명나고 집단적인 것은 줄다리기, 고싸움, 차전놀이, 석전, 횃불싸움 등과 같은 편싸움이다.
- ②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전날에 풍년을 기원하여 화적(禾積)을 세운다고 하였다.
- ③ 민간에서 행하던 풍년예축 행사였던 화적 세우기는 궁중의 내농작 또는 가농작이라는 기풍행사를 수용한 것이다.
- ④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을 지어먹는 풍속은 농사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6. 동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지를 중요한 명절로 치는 근거는,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 ② 동지는 예로부터 아세(亞歲)라고 하였는데 이는 ‘작은 설’이라는 뜻이다.
- ③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었고, 팥죽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했다.
- ④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산정된 날이다.

7. <보기>는 전통혼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게 짹지은 것은?

- <보기>
- 혼례를 치르고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우귀 혹은 (가) (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가에 와서 시부모에게 드리는 인사를 혼구고례라고 하는데 이때 신부가 친정에서 준비해 온 (나) 을(를) 시부모에게 드린다. 신부가 시집살이를 얼마쯤 하다 친정에 가는 첫나들이를 (다) (이)라고 한다.

	<u>(가)</u>	<u>(나)</u>	<u>(다)</u>
①	납채	초행	신행
②	신행	폐백	근친
③	초행	납폐	신행
④	근친	전안례	초행

8. 금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끼의 양끝은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 ② 금줄은 원새끼 줄을 사용한다.
- ③ 벽사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④ 아이가 갓 태어난 집에 표식으로 사용하였다.

9. 전통상례의 일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게 짹지은 것은?

<보기>

사람이 운명한 후 떠나가는 영혼을 다시 불러 소생시키는 의미의 초혼의례를 하니 이를 (가) (이)라 한다. 이어 망자를 저승까지 인도하는 신을 위한 (나) 을(를) 차린다. 시신이 굳기 전에 시신을 반듯이 펴고 간단하게 묶으니 이를 (다) (이)라 한다. 몇몇 절차를 더 거친 후, 입관을 끝내고 (라) 을(를) 한 다음에 조문객을 맞는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호상	사자상	대렴	상여놀이
②	고복	사자상	수시	성복
③	초복	저승상	대렴	상복
④	복복	저승상	수시	성복

10. <보기>의 (가)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가택신은?

<보기>

(가) 은(는) 안방 시렁에 쌀을 담은 작은 단지를 신체로 모시기도 한다. 쌀은 햅곡식이 나올 때마다 같아 넣는데, 이 쌀은 반드시 식구들만 먹는다. (가) 은(는) 가족을 보호해주고 가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주로 장남 집에 모셔지고, 혈연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① 성주신 | ② 조왕신 |
| ③ 삼신 | ④ 조상신 |

11. 의생활 민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갓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초생아복은 지역에 따라 삼칠일옷, 세이래옷, 배내옷, 일안저고리, 이레안저고리, 봇뒤창옷 등이라 불렸다.
- ②돌옷으로 백색 옷감 백 줄을 누벼 만든 누비옷을 입히면 백살까지 산다고 믿었다.
- ③상복은 머능옷, 저승옷, 호상옷이라고도 불렸다.
- ④몸빼는 새마을 운동 때 여성 인력의 동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동복이다.

12.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의 민간신앙은 현재 삶에 대한 구복적인 성격 보다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 ②한국의 민간신앙은 천신, 산신, 용신, 지신 등 여러 신을 모시는 다신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 ③한국의 민간신앙은 주술적 성격이 강하고 불교, 무속 등 여러 신앙 형태가 복합되어 있다.
- ④한국의 민간신앙은 교조와 교리, 교단과 신도 등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연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13. 지신밟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력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마을의 농악대가 풍물을 치면서 동네 가가호호를 돌며 평안을 비는 것이다.
- ② 지신밟기를 할 때는 농악대가 걸립(乞粒)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포함되었다.
- ③ 지신밟기는 매구치기, 매굿[埋鬼] 또는 매귀행사와 다른 것이다.
- ④ 음력 정초에 농악대가 집에 들어와 풍물을 치면서 축원을 하면 그 집에서는 농악대에게 술상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생업민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례의 성원은 한 마을의 농가당 1명씩 참여하여 구성하였다.
- ② 품앗이는 개인적인 것으로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혹은 친지간에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이다.
- ③ 부상은 방문고리에 주로 세공품이나 화장품 등을 담아 팔았고, 보상은 생선, 목기, 소금, 옹기와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 ④ 객주는 객상주인의 준말이며, 각처에 모여드는 객상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생업활동으로 하는 상인이다.

15. 농기구는 농업의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여 왔다. 농기구는 동력원을 기준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인력농기구 → 인축겸용농기구 → 축력농기구로의 발달이 추정되는데, 이들 발달과정에 맞게 농기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쇠스랑→극쟁이→쟁기
- ② 끙개→극쟁이→따비
- ③ 길마→극쟁이→벼훑이
- ④ 옹구→극쟁이→곰방메

16. 판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서편제는 조선 순조 때의 명창인 김성옥과 염계달을 시조로 하며, 광주·나주·보성 등 섬진강 서쪽에서 널리 유행하던 판소리의 한 유파이다.
- ② 동편제는 19세기 중반의 명창 송홍록을 시조로 하며, 운봉·구례·순창 등 섬진강 동쪽에서 널리 유행하던 판소리의 한 유파이다.
- ③ 중고제는 조선 현종~고종 때의 명창 박유전을 시조로 하며, 경기·충청 지역에서 전승되던 판소리의 한 유파이다.
- ④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도라지타령 등은 대표적인 판소리 작품이다.

17. 속신(俗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속신이란 초인적인 힘의 존재를 믿고 거기에 대처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신앙이나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ㄴ. 예조란 미래에 발생될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과 관계의 결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 ㄷ. 점복은 주술적 행위로서 예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신비점이 대표적이다.
- ㄹ. 주술은 흔히 종교와 혼동되기도 하며, 모방주술과 전파주술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보기 1>의 민속문학과 <보기 2>의 설명을 옳게 짹지는 것은?

<보기 1>

(가) 설화

(나) 민요

(다) 민속극

<보기 2>

- ㄱ. 민중들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 불러온 노래로서 일이나 의식, 놀이를 하면서 불렀다.
- ㄴ. 춤과 음악, 재담, 동작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인 성격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 ㄷ. 민중의 생활 경험을 간결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구를 말한다.
- ㄹ.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눌 수 있다.

(가)(나)(다)

① ㄴ

ㄷ

ㄱ

② ㄷ

ㄱ

ㄹ

③ ㄹ

ㄱ

ㄴ

④ ㄹ

ㄷ

ㄴ

19. 현재까지 조사된 무가(巫歌)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불려오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창부타령

② 노랫가락

③ 바리공주

④ 문전본풀이

20. 남사당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남사당이라는 전문예인집단에서 전승된 전통연희와 놀이이다.
- ㄴ. 현재 줄타기인 덜미, 인형극인 어름, 땅재주인 살판, 벼나 돌리기 등 여섯 종목이 전해진다.
- ㄷ. 1964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 ㄹ. 2009년 유네스코 인류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이 면은 여백입니다.